풍수지리(風水地理) 오방정색론과 오행론을 적용한 주거지역의 색채환경 분석에 관한 연구*

- 신제주시 연동지역을 중심으로 -

고봉선** · 안옥희*** · 송대선****

〈차 례〉

1. 서론
2. 이론적 고찰
   1) 오방정색론의 기초
   2) 오행사상의 기초
   3) 연구대상지의 풍수지리적 해석
3. 연구방법
4. 연구대상지의 주거공간의 색채분석
5. 연구결과분석

【국문초록】

본 연구는 공간디자인의 중요한 요소인 색채와 형태에 주목하여, 공간을 자연환경과 인간과 조화시키는 매개체로 생각하는 풍

---

* 본 논문은 동아시아문화학회 ·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3년 추계 연합국제학술발표대회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
** 영남대 가족주거학과 박사과정수료(제1저자)
*** 영남대 가족주거학과 교수(교신저자)
**** 영남대 가족주거학과 박사과정수료(공동저자)

수지리 이론의 오방정색론과 오행론을 적용하여 주거공간의 색채 환경을 분석함으로써 공간디자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 신제주지역의 연동의 주거지역이며,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지역을 오방정색론과 오행론으로 분석하고, 그 지역에 맞는 주거건물의 색채와 형태를 제안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남북 모든 지역이 풍수적 생기를 받기 어려운 건물의 형태와 색채현황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오방정색론과 오행이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오행론(五行論)을 적용하여 주변의 지세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물형태를 제시하였다. 즉, 동쪽은 목(木)의 지기가 왕성한 곳이므로 건물형태나 지붕형체를 목형체으로 하고, 서쪽은 금(金)의 지기를 머금고 있는 곳이므로, 금형체, 남쪽은 화(火)의 지기를 머금고 있으므로 화형체, 북쪽은 수(水)의 지기를 머금고 있으므로 수형체를 하도록 제안하였다.

셋째, 오방정색론을 적용한 그 지역에 맞는 디자인을 하도록 색채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즉, 한번 형성된 건물의 형태는 변경하기 어려우나 상대적으로 손쉽게 변경가능한 색채를 활용하여 그 지역의 지기와 생기를 받을 수 있도록 동쪽은 청색, 서쪽은 흰색, 남쪽은 적색, 북쪽은 흑색으로 디자인하도록 제안하였다.

이와 같이 풍수지리이론인 오방정색론과 오행론을 적용하여 주거공간의 색채환경을 분석하고 그 적용안을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적용되는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보다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제어: 풍수지리, 오행론, 색채, 환경

1. 서 론

디자인의 시각적 수단은 크게 형태와 색채로 나눌 수 있다. 그 중 색채는 디자인의 의미나 상징, 거리감, 질감, 대비 등의 느끼게 하는 수단이 된다. 즉, 색채는 디자인의 중요한 기초 요소이며 디자인이 지닌 기능적, 심미적 특성을 강화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1] 또한 색은 문화권의 차이에 따라 동일한 색에 대한 수용자의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이러한 반응의 차이는 색이 갖는 사회문화적 의미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한 민족의 자연환경, 역사적 경험, 사상이나 종교 등의 차이에서 발생한다.[2] 또한 경관을 구성하는 지배적인 요소는 형태, 선, 색채, 질감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그 중 색채는 시지각적 인지도가 가장 높은 요소이다. 색채는 경관의 지각에 있어 자극의 강도가 가장 강한 요소이며, 지역의 분위기나 이미지를 좌우하기 때문에 지역이미지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이는 공공디자인 뿐만 아니라 민간건축물도 도시의 흉물이 되지 않도록 색채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 따라서 디자인의 연구는 물론이고 실제로 실현화시키는 현장에서 색채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또한 공간을 디자인한다고 하면 공간의 형태를 결정하는 것이 아주 큰 영역을 차지한다. 즉, 디자인에 있어서 형태의 결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색채에 비하여 형태는 한번 결정한 뒤에는 변경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풍수지리는 한국문화 연

---

1) 진주현, 「어린이집의 색채계획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p. 13.

2) 이규완, 「삼국유사 색채어의 길흉표현과 오방정색론의 확산에 관한 연구」, 언론학연구, 17(2) 2013, pp. 159-188.

1) 박유리 · 이명훈,「가로공간의 색채가 지역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5(6), 2010, pp. 5-19.

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연구주제이다. 풍수지리원리를 알지 못하거나 풍수술이 한국문화에 미친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는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2] 풍수지리는 동양에서는 오래 전부터 학술적 연구주제이었으며, 최근에는 서양에서도 활발한 연구[3]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풍수지리는 매우 중요한 연구주제로 다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지리학 분야[4]에서 풍수에 관한 연구가 많으며, 지리학, 역사학, 건축학, 조경학, 토목학, 철학, 민속학, 인류학, 국문학, 중문학, 물리학 등 다양한 방면과 연계되어 연구되고 있다.[5] 풍수지리는 공간을 대상으로 인간과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하는 분야이다. 디자인 분야 중에서도 풍수지리와 관련된 공간디자인은 인간이 거주하고 이동하는 모든 삶의 공간을 창조하고 구축하는 공간적 문제해결을 목표로 하는 과정이다. 풍수지리는 물리적 대상과 범위를 건축물이나 주어진 공간으로부터 주변의 산세와 강물의 흐름까지 매우 넓게 생각하며, 공간을 자연환경과 인간과 조화시키는 매개체로 생각하여 자연환경 중심으로 범위를 파악한다. 따라서 풍수지리의 공간체계는 인간의 활동과 자연환경이 조화를

---

2) 윤홍기, 「왜 풍수는 중요한 연구주제인가」, 대한지리학회지, 36(4), 2001, pp. 343-355.

3) 한종구, 「홍콩섬의 현대건축에 적용된 풍수에 대한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1(12), 2005. pp. 29-36.에서 외국의 여러 건축가들이 현대건축을 설계할 때 풍수이론을 적용한 사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황보봉은 서양문헌에 나타난 풍수의 개념(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7(11), 2001, pp. 125-132.에서 건축학에서의 풍수를 언급하면서 서양의 여러 학자들이 풍수에 대하여 논한 것을 언급하였다.

4) 윤홍기는 풍수지리는 한국 지리학의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한국 지리학은 풍수지리를 연구하여 학계에 공헌해야 할 학문적 사명을 맡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였다 「왜 풍수는 중요한 연구주제인가」, 대한지리학회지 36(4), 2001, pp. 343-355.

5) 장성규, 「국내 풍수지리학 교육현황」, 대한건축학회 건축, 54(5), 2010, pp. 89-93.

이룰 수 있는 하나의 유기제적 질서체계이자, 우리의 보편적인 사유체계이면서 오늘날의 패러다임에 부응할 수 있는 하나의 실천적 대안이 된다.[6] 특히 전술한바와 같이 디자인에서 중요한 요소인 색채에 대해서 풍수지리에서는 방위에 따라 생기(生氣)가 다르다고 보고, 그 성질을 색채로 나타내고 있다. 즉, 동서남북 그리고 중앙의 5곳 방위를 오방색(청・백・적・흑・황)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이러한 이론을 오방정색론이라고 한다. 오방정색론은 음양오행사상에 입각하여 방위, 사물, 계절 등을 다섯 가지의 색과 연결한 것이다.[7]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간디자인의 중요한 요소인 색채와 형태에 주목하여, 공간을 자연환경과 인간과 조화시키는 매개체로 생각하는 풍수지리 이론의 오방정색론과 오행론을 적용하여 주거공간의 색채환경을 분석함으로써 공간디자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1) 오방정색론의 기초

오행(五行)의 체계는 음(陰)과 양(陽)이라는 우주공간의 이기(二氣)가 다섯 가지 요소(木・火・土・金・水)로 분류되며, 우주의 변화에 의해 기가 운행하고 있다는 개념이다. 이러한 오행사상에 의한 오방정색론은 다섯 가지의 정색(正色)과 다섯 가지의 간색(間色)을 기본으로 한다. 오방정색은 청・백・적・흑・황이며, 정색을

6) 은덕수・최성호, 「지속가능한 디자인 방법론으로서 풍수이론에 대한 고찰」, 한국디자인지식학회 논문집, 2010, pp. 1-10.

7) 이규완, 「삼국유사 색채어의 길흉표현과 오방정색론의 확산에 관한 연구」, 언론학연구, 17(2), 2013, pp. 159-188.

섞은 색이 간색이다. 오방정색은 양의 색이고, 오방간색은 음의 색이다. 오방정색론은 한국의 전통색을 설명하는 색이론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이다. 오방정색론에서 청(靑)은 동쪽-생성-봄-나무-어짐 등이고, 백(白)은 서쪽-결실-가을-금속-올바름 등이며, 적(赤)은 남쪽-성장-여름-불-예의 등이며, 흑(黑)은 북쪽-휴식-겨울-물-지혜 등이며, 황(黃)은 중앙-조화-사계절-땅-믿음 등의 의미를 갖는다. 오행사상으로 보는 색은 서열이나 계급 또는 수서나 방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8] 또한 오방색은 동서남북 사방위와 중간조절자로서 중앙의 황을 포함한 것이다. 이는 주산을 등지고 아래로 내려다 볼 때 뒤쪽은 북쪽 현무가 되며, 앞쪽은 주작, 좌측은 청룡, 우측은 백호, 중앙의 혈(穴) 자리는 황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오방정색론에서는 실제 방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징적 방위를 나타낸다.[9] 오방정색론을 본 연구대상지인 연동지역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즉, 중앙은 '연동로타리'이며, 이곳은 황색을 상징하므로, 오행의 토(土)의 기가 형성된 것을 뜻한다. 동쪽은 '제주은행'으로 푸른색을 상징하며, 목(木)의 기가 형성되는 곳이다. 서쪽은 '삼무공원'으로 흰색을 상징하므로, 금(金)의 기가 형성된 곳이다. 남쪽은 '남짓은오름'지역으로 적색을 상징하므로, 화(火)의 기가 형성되어 있다. 북쪽은 '명주마을'로 흑색을 상징하므로, 수(水)의 기가 형성되어 있는 것을 상징한다.

---

8) 이규완, 「삼국유사 색채어의 길흉표현과 오방정색론의 확산에 관한 연구」, 언론학연구, 17(2), 2013, pp. 159-188.

9) 박효철 · 이승노, 「전통풍수의 상징적 의미를 체용한 간판 배색 제안」,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2(2), 2013, pp. 131-139.

<표 1> 방위-색채-오행-형태

방위	동	서	중앙	남	북
오방색	청색	흰색	황색	적색	흑색
오행	목(木)	금(金)	토(土)	화(火)	수(水)
형태	▮	⌓	▢	⩚	⌒⌒
계절	봄	가을	변절기	여름	겨울

2) 오행사상의 기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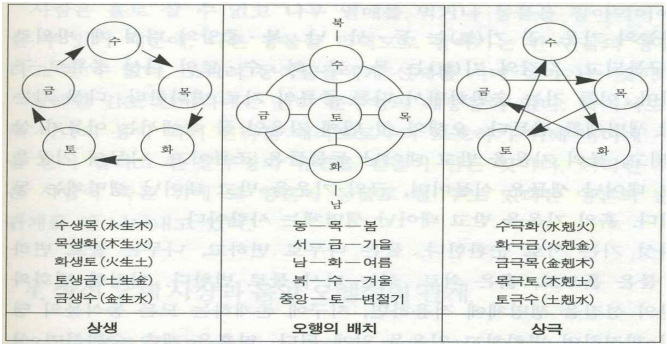
오행사상의 핵심 개념은 기(氣)이다. 하늘에서 발생되는 기는 양기이며, 땅에서 발생되는 기는 음기를 뜻하는데, 이러한 기는 자연에 분산되어 있는 에너지이다. 이러한 양기와 음기가 결합하면 5가지의 기운이 발생된다고 보는 것이 오행사상의 근원이다. 오행의 기는 목(木), 금(金), 토(土), 화(火), 수(水)의 다섯 가지 기운이며, 이 오행으로 방위, 수, 계절, 형태 등을 나타낼 수도 있다. 즉, 풍수지리에서 산의 형태를 오행으로 구분하듯이, 건물의 형태도 오행으로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주거공간의 건물형태가 풍수지리적 지세의 방위에 따라 지기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동쪽방위의 지세는 정주공간에 목을 상징하는 건물형태가 지기의 영향을 받는다고 본다. 이는 목형체의 건물형태는 수직형태를 이루는 것인데, 산봉우리의 지세가 붓끝 같이 솟아 있는 형태를 문필봉을 상징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서쪽은 금형(金型 : 솥뚜껑형상)체, 남쪽은 화형(火型 : 불꽃형상)체, 북쪽은 수형(水型 : 물결형상))체의 건물들이 각각의 풍수지리적 방위에 따른 지세의 영향에 받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풍수지리방위지세론(風水地理方位地勢論)'으로 정의할 수 있다.

건물형태에 대한 오형체의 풍수지리적 상징은 다음과 같다. 목산(木山) 지붕은 피라미드처럼 한 정점을 갖고 솟아있는 지붕이다.

목산의 기운과 같이 목산지붕에서는 기운이 수직 상승하며 중심에 집중된다. 수산(水山) 지붕은 지붕 정상 용마루 선이 아래로 처진 지붕이다. 대체로 차분하고 안정되어 평화로운 분위기를 이루고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운이 좌우로 분산돼서 중심에 모이는 힘이 없다. 한국 전통 기와지붕이 대표적인 경우인데, 용마루 중심 부분이 아래로 처져있어 흉가 형태이다. 금산(金山) 지붕은 돔과 같은 원형 지붕으로, 가장 이상적인 지붕 행태이다. 중심에 기운을 집중시키는 힘이 강해 사람들을 단결시킨다. 이슬람교 건물과 인도 타지마할이 대표적이다. 우리나라 초가지붕도 금산 지붕에 속하며 명당 형태이다. 화산(火山) 지붕은 뾰족한 지붕을 말하는데, 화산이 불을 상징하는 만큼 이런 지붕은 기운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 공격적인 기운이 강하다. 토산(土山) 지붕은 지붕면이 위로 갈수록 좁아지면서 평면은 사각형을 이룬 형태이다.[10] 한편, 오행은 서로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의 변화를 가진다. 상생원리는 토가 흩어진 기를 모아서 금을 생(生)하고 금은 수를 생하며 수는 다시 목을 생하고 목은 화를 생하는 것으로 서로 순환하면서 도우는 기운의 변화를 뜻한다. 반대로 상극원리는 토는 수를 극(剋)하고 수는 화를 극하며 화는 다시 금을 녹이고, 금은 목을 극하게 되는 원리를 말한다. 이러한 오행의 상생상극을 풍수지리에서 산세의 형국을 보고 길흉화복으로 판단하는데 적용하고 있다. 이처럼 여러 가지 기의 흐름을 판단하여 인간에게 좋한 기운을 만드는 형국, 즉 양택이나 음택의 입지를 길(吉)한 터로 판단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산세가 서로 상극을 이루는 곳은 양택이나 음택에 대해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흉(凶)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여기서 길한 기운을 풍수지리에서 생기(生氣)라 한다. 풍수지리적으로 생기가 흐르는 땅은 산수가 조화를 이루면서 서로 상생하는 형국이며, 그곳의

10) 박시익, 『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1999, pp. 225-227.

기운은 음양이 균형을 이루는 곳이므로 명당(明堂)으로 정의한다.



<그림 1> 오행의 배치와 상생. 상극[11]

3) 연구대상지의 풍수지리적 해석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도라 함)는 한라산이 중심으로 동고서저의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남사면은 서귀포시를 이루고, 북사면은 제주시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제주도는 한라산에서 뻗어 내린 용맥(龍脈)들이 약 360여개의 오름[12] 형태를 이루면서 전 지역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연구대상인 연동지역은 제주시에 입지하고 있으며, 한라산 용맥이 북쪽으로 뻗어내려 신제주시의 정주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중심지에 자리한다. 그리고 연동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으로 오름이 있어 풍수지리적으로 사신사(四神砂)[13]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곳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연동지역

11) 박시익, 위의 책, p. 49.

12) '오름'은 제주도의 방언으로 산이나 언덕 또는 봉우리 형태를 이룬 것을 의미한다.

13) '사신사(四神砂)'는 혈처를 감싸고 있는 주변의 네 방위(동·서·남·북)의 산세를 말하는 것인데, 북쪽은 현무, 동쪽은 청룡, 남쪽은 주작, 서쪽

은 신제주시의 중심공간이며 주변의 사신사에 의해 지기(地氣)[14]를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풍수지리적으로 혈처(穴處)를 이룬 곳으로 볼 수 있다. 신제주시 연동지역을 중심으로 네 방위에 입지하고 있는 정주공간에 대해, 풍수지리학의 형식논리(간룡・장풍・득수・좌향)를 적용하여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15] 첫째, 간룡(看龍)분석은 산맥을 답사하여 그 진위와 생사를 보는 것으로, 관룡(觀龍) 또는 심룡(尋龍)이라고도 한다. 즉, 본 연구대상지인 제주도의 주산(主山)인 한라산(1,950m)의 지기가 정주공간이 의지하고 있는 현무봉(玄武峰)[16]으로 이어져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간룡이다. 간룡분석을 하는 이유는 풍수지리적 명당의 지기를 받는 곳은 반드시 주산의 내룡맥이 이어진 공간에 입지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용맥이 끊어진 공간은 명당공간을 이룰 수 없다. 신제주시 연동지역에는 한라산을 의지하는 민오름과 남짓오름이 있으며, 이는 한라산의 내룡맥이 금오름 - 상여오름 - 광이오름 - 남짓은오름 - 민오름으로 이어진 것이다. 이런 입지는 한라산에서 뻗어 내린 용맥이 단맥(斷脈)되지 않은 형국으로, 연동지역은 한라산의 지기를 받고 있으므로, 풍수지리적으로 명당공간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둘째, 장풍(藏風)분석은 정주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입지를 중심으로, 주변산세가 사신사를 갖춘 공간인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지기는 바람에 흩어지기 때문[17]에 바람을 막을 수 있도록 주변산세

은 백호를 의미한다.

14) '地氣'는 땅속에 머물거나 분출되는 에너지를 말하는데, 풍수적으로 이러한 기는 바람에 흩어지기 때문에 머물 수 있도록 감싸는 형국을 필요로 한다.

15) 형식논리에 따른 입지분석의 명당조건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풍수지리적 방위개념에 따른 입지와 산세를 이루는 용맥을 기준으로 분석한 것임을 밝혀둔다.

16) 현무봉(玄武峰)은 집이나 묘 뒤에 있는 작고 단아한 봉우리를 말한다. 현무봉 좌우에서 청룡 백호를 뻗어 감싸준 가운데 중심으로 주룡이 내려와 혈을 맺는 중심봉우리를 뜻한다.

17) 『文淵閣四庫全書』 第808冊 「葬書」, 여강출판사, p. 14. '기풍즉산(氣風則

가 에워싸듯이 사신사를 이룬 곳이 풍수지리적으로 정주공간에 형성된 지기를 보호하는 형국이다. 연동지역은 한라산의 내룡맥이 뻗어와 좌우로 개장하면서, 남으로는 남짓오름과 민오름이, 동으로는 가새기오름이, 북으로는 작은오름이, 서에는 베두리오름 등이 감싸는 중앙에 입지하고 있다. 이런 정주공간은 사신사에 의해 산세가 에워싸고 있는 형국이므로 지기가 보존될 수 있는 명당조건[18]을 갖춘 입지로 볼 수 있다.

셋째, 득수(得水)분석은 주산의 내룡맥이 머무는 정주공간이 물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인지를 판단하는 것이다.[19] 풍수지리적 생기는 음양의 조화를 이룬 곳에 생성된다. 즉 산은 머물고 있는 형태를 이루기 때문에 음(陰)이며, 물은 유동적이기 때문에 양(陽)으로 표현한다. 그러므로 산과 물이 서로 만나는 곳이 명당조건을 갖춘 곳이다. 이처럼 득수는 용맥을 머물게 하는 역할을 하면서, 아울러 음양의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한다.[20] 아울러 물의 발원처도 풍수지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만약 물의 발원처가 주산일 경우, 그 물은 주산의 지기를 머금고 흐르는 득수이므로 수기(水氣)를 갖고 있다. 이러한 수기는 주산의 내룡맥과 만나 경계를 짓기 때문에, 음양의 조화를 이룸으로써 생기를 생성하는 공

散)'은 기가 바람을 만나면 반드시 흩어진다는 뜻이다.

18) 박재락에 따르면, 산과 물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룬 종택마을이 400-500 년 동안 훼손되지 않고 현존하고 있다는 것은, 풍수지리적으로 명당입지를 이룬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풍수지리의 양택입지에서 산과 물은 명당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박재락, 「종택마을의 형성배경 및 입지공간에 관한 풍수지리적 분석」, 인문연구』 제68호, 2013, pp. 275-290을 참조함.

19) 『文淵閣四庫全書』 第808冊 「葬書』, 여강출판사, p. 14. 계수즉지'(界水則止)' 물이 경계를 이룬다는 것으로, 용맥이 더 이상 흘러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형국을 말한다.

20) 『文淵閣四庫全書』 第808冊』, 「葬書」득수위상(得水爲上), 藏風次之'(장풍차지) 용맥이 반드시 물을 만나는 공간인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간을 형성하게 된다. 신제주시 연동지역은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흘천과 토천이 수계(水系)를 이루는 곳을 득수하고 있다. 이러한 물길은 신제주시를 중심으로 좌측으로 흘천이, 우측으로 한천이 감싸듯이 흐르고 수세이므로, 연동지역의 정주공간은 완벽하게 득수를 이룬 것으로 본다. 따라서 연동지역을 둘러싸고 있는 수세(水勢)는 정주공간의 지기와 만나 생기를 생성할 수 있는 득수형국을 이룬 곳이므로, 풍수적 명당조건인 득수형태를 충분히 갖춘 입지이다. 넷째, 좌향(坐向)분석은 정주공간의 입지가 주변산세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지를 좌와 향을 판단하는 것이다. 이때 좌는 중심건물이 산을 의지하는 곳의 방향성을 갖추어야 풍수적으로 산세의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향은 마주하는 방위가 정주공간과 서로 기(천기・지기)를 조응・반사할 수 있는 입지로 향하여야 한다. 이것은 좌가 정해지면 향은 자연히 따르기 때문이다.[21] 풍수지리적으로 앞으로 향하는 곳은 향(向)이고 향의 반대방향은 좌(坐)가 되므로, 건축물의 전면은 향이고 뒤쪽은 좌가 된다.[22] 공간입지에 있어서 좌향은 지세에 따라 판단한다. 제주도의 경우는 중앙에 위치한 한라산의 지세는 남고북저(南高北低)의 산세를 이루고 있는데, 이때 남쪽 뒤편의 서귀포시는 한라산의 뒤(등)가 되며 북쪽의 신제주시는 앞(얼굴)이 된다. 즉 혈처는 지세의 흐름에 따라 형성되기 때문에, 북향의 신제주시가 지세에 따른 좌향으로 명당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

21) 패철의 방위는 24방위로 이루어져 있다. 예로 든다면 좌(坐)가 정북(壬子癸)이면 마주하는 향(向)은 정남(丙午丁)을 이루게 된다. 이때 정북과 정남은 절대방위와 상대방위에 따라 풍수적 판단은 다르지만, 두 경우 모두 정해진 좌와 향은 변하지 않는다.

22) 양택에 있어서 좌향의 기준은 마당이나 대문(입구)이 전면에 위치 할 때, 향으로 판단한다.



<그림 2> 신제주지역의 풍수지리 모식도

이와 같이 풍수지리학의 형식논리를 적용하여 신제주시 연동지역의 정주공간을 분석한 결과, 한라산 북사면의 용맥을 순응한 지세를 의지하여 입지를 이루고 있으므로, 한라산의 지기를 받고 있는 곳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정주공간은 주변산세가 사신사를 이루고 있으므로, 지기가 바람에 흩어지지 않고 항상 머물고 있는 명당공간으로 나타났다. 또한 득수에 있어서 한천과 흘천이 정주공간을 감싸고 흐르는 수세를 이루기 때문에, 음과 양이 만나는 공간에 생기를 생성하는 득수형태를 이룬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지인 신제주시 연동지역 입지는 풍수지리의 명당조건인 산(한라산)과 물(토천・흘천)이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는 곳이므로, 항상 명당지기를 품고 있는 입지로 볼 수 있다.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신제주시 연동지역을 중심으로 동

서남북 방위의 주거공간을 오방정색론과 오행사상을 적용하여 색채와 형태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공간디자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신제주시의 중앙에 위치한 '신제주로타리'를 중심으로 반경 2㎞에 입지한 정주공간으로 한정하였다. 방위별로 보면, 동쪽은 제주은행일대, 서쪽은 삼무공원일대, 남쪽은 남짓은오름일대, 북쪽은 명주마을일대이며, 이 지역은 대부분 다세대 및 단독주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 1>은 위성지도상에 나타난 신제주시 전체지역이고, <사진 2>는 연동을 중심으로 방위별로 지역을 표시한 것이다.



<사진1> 연구대상지의 위성지도



<사진2> 연구대상지의 방위별 범위

본 연구는 주거용 건축물의 색채와 형태를 중심으로 방위별 지역의 정주공간을 각각 조사하였다. 조사방법은 현장조사를 통한 촬영사진과 인공위성지도를 사용하였다.

연구기간은 2013년 6월~11월이며, 연구의 진행 및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대상지역을 방위별로 분류하여 풍수지리적 특성을 분

석하였다.

둘째, 연구대상지역의 현재의 건물색채와 건물형태를 파악하였다.

셋째, 연구대상지역을 방위별로 분류하여 오방정색론에 따른 색채를 적용하였다. 즉, 동쪽방위인 제주은행뒤편지역은 청색계통, 서쪽방위인 삼무공원지역은 흰색계통[23], 남쪽방위인 남짓은오름지역은 적색계통, 북쪽방위인 명주마을은 흑색계통으로 적용하였다.[24] 넷째, 각 방위별 정주공간의 지세에 대해 풍수지리의 오행(목・화・토・금・수)사상을 적용하여 건물형태를 분석하였다. 다섯째, 각 방위별 정주공간을 대상으로 오방정색론을 적용한 색채디자인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1) 동쪽방위의 제주은행 뒤편 지역

동쪽방위인 제주은행 뒤편 지역은, 가새기오름(1150m)이 현무봉을 이루고 있는 곳을 의지하는 정주공간이다. 이곳의 풍수지리형국을 살펴보면, 현무봉인 가새기오름은 한라산에서 좌선(左旋)[25]으로 뻗어 내린 내룡맥[26]이 연동의 남쪽방위에 위치한 남짓은오름과

---

23) 흰색부분은 인쇄물로 나타낼 수 없으므로, 표시를 위해 인위적으로 옅은 회색으로 표현하기로 한다.

24) 중앙방위는 연동로타리 지역이므로, 오방정론을 적용하면 황색계통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렇지만 연구의 분석을 위해 네 방위의 중심점을 상징하기 위해 정한 공간이므로, 현재는 정주공간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곳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25) 주산의 용맥이 개장(開場)하면서 좌측으로 뻗어내린 산줄기를 뜻하는 풍수용어를 말한다.

26) 주산에서 뻗어내린 용맥이 생기를 머금고 현무봉을 만들기 위해 행룡(行

민오름을 세운 뒤, 다시 동쪽으로 크게 환포하여 기봉한 오름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곳은 한라산의 내룡맥이 뻗어와 동쪽방위에 현무봉을 이룬 곳을 의지하므로, 청룡지맥[27]의 기를 받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동쪽은 목(木)의 지기가 왕성한 곳이므로 건물의 색은 청색[28]을 띠고 건물형태나 지붕형체가 목형체(▮)를 이루어야 풍수지리적 동기(同氣)를 받을 수 있다.[29] 그러나 이곳의 현황을 살펴보면, 건물 외벽과 옥상은 5~6개의 색상(흰색 · 황색 · 주홍색 · 회색 · 그린색)들이 혼용되어 있으며, 건물의 형태도 '▢' 와 '⌓' 형태를 이루고 있다. '▢'과 '⌓'의 건물형태는 오행의 형태로 적용하면 토형체와 수형체이다. 즉, 중앙의 지기를 받는 형태이다. 따라서 현재 이곳 동쪽의 건물색채와 건축형태는 풍수지리적 방위의 동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정주공간이 명당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동쪽방위의 명당기운인 청색으로 색채디자인을 적용하고, 건축형태를 목형체인 '▮'으로 하여야 한다. <사진 4-4>는 오방정론색론에 따라 동쪽방위의 정주공간에 적합한 청색으로 색채 시뮬레이션을 한 것이다. 그리고 건물의 형태를 변경하기에는 현

龍)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27) 동쪽방위에 현무봉을 이루는 지맥은 한라산에서 출맥하여 남짓오름-민오름으로 이어져 온 용맥이 기봉한 것이다. 이것은 가새기오름의 좌측지맥과 연결된 형국이므로, 청룡지맥의 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28) 청색과 녹색은 자연의 색이며 창조, 신생, 생식을 상징하기 때문에 양기(陽氣)가 강하게 작용하는 색채를 의미한다. '양기'는 곧 태양의 빛에너지를 말한다.

29) 정주공간에 입지한 건물의 지붕형태도 오행론을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산봉우리에 나타난 형태를 오형체로 인식한 것인데, 풍수적으로 양택의 건축구조물중에서 지붕공간이 높기 때문에 먼저 천기를 받는다는 것과 같은 의미를 내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목형(木型)은 위로 상승하는 '▮' 형태, 화형(火型)은 불 같이 타오르는 '⩚'형태, 금형(金型)은 '⌓' 형태, 수형 (水型)은 '⌓' 물결 형태, 토형(土型)은 '▢'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으므로 향후 이곳에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진 4-6>과 같이 방위의 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목형체로 하는 것이 좋다.

	
<사진 4-3> 동쪽방위의 색채현황	<사진 4-4> 동쪽방위의 색채시뮬레이션
	
<사진 4-5> 동쪽방위 건물형태현황	<사진 4-6> 오행의 목형건물

2) 서쪽방위의 삼무공원 지역

서쪽방위인 삼무공원일대 지역은 베두리오름(85m)이 삼무공원을 이루고 있는 곳을 의지하고 있다. 이곳의 풍수지리형국을 살펴보

면, 현무봉인 베두리오름은 한라산에서 뻗어 내린 내룡맥이 상여오름(246m)을 기봉한 뒤, 우선(右旋)[30] 지맥이 다시 서쪽으로 크게 환포하여 기봉한 오름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이곳은 한라산의 내룡맥이 뻗어와 서쪽방위에 현무봉을 이룬 곳을 중심으로 의지하고 있으므로, 백호지맥[31]의 기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서쪽은 금(金)의 지기를 머금고 있는 곳이므로, 건물의 색은 흰색[32]을 띠고 건물형태나 지붕형태가 금형체(⌓)를 이루어야 풍수지리적 동기를 받을 수 있다. 이곳은 상업공간과 주거공간으로 이원화된 곳인데, 앞쪽은 번화한 도심거리를 이루고 있으며 뒤쪽은 주거지역을 형성하고 있다. 이곳의 주거공간은 고급형의 현대주택들이 주를 이루면서 건물은 다양한 색채(주황색・녹색・회색・적색)와 건물형태(▮,□, ⧋)가 있었다. 이러한 색채와 건물형태는 백호지맥의 풍수지리적 동기를 받을 수 없는 형태이다. 따라서 현재 이곳 서쪽의 건물색채와 건물형태는 풍수지리적 방위의 동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정주공간이 명당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서쪽방위의 명당기운인 흰색(노랑색)[33]으로 색채디자인을 적용하

30) '右旋'이란, 주산의 용맥이 개장(開場)하면서 우측으로 뻗어내린 산줄기를 칭하는 풍수용어이다.

31) 오정방색론에 따라 현무봉을 기봉한 지맥은 한라산을 거쳐 상여오름에서 이어져 온 용맥이다. 따라서 현무봉인 베두리오름의 우측지맥과 연결된 형국이 되므로 백호지맥을 상징하는 것이다.

32) 흰색은 가시광선 전체를 반사하는 색이며 순결과 청순, 결실을 상징하기 때문에 음기(陽氣)가 강하게 작용하는 색채를 의미한다. '음기'는 곧 활동을 마무리하고 모두를 포용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33) '풍수지리방위색채론(風水地理方位色彩論)'을 적용하면 중앙방위(土)를 상징하는 노란색은 '토생금(土生金)'이 되므로, 서쪽방위(金)의 흰색을 상생하게 된다. 따라서 서쪽방위의 색채는 흰색과 노랑색이 같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풍수지리방위색채'는 동쪽은 청색톤(녹색・청녹색・그린색・담청색), 서쪽은 흰색톤(연아이보리・연노랑), 남쪽은 적색톤(빨강・자주・남색・진주홍), 북쪽은 흑색톤(검정・회색・짙은갈색), 중앙은 황색톤(노랑색・항토색・주황색)으로 분류하여 서로 다섯 방위에 상생・상극

고, 건축형태를 금형체인 '⌓'로 하여야 한다. <사진 4-8>은 오방정론색론에 따라 서쪽방위의 정주공간에 적합한 흰색으로 색채시뮬레이션을 한 것이며, 향후 이곳에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진 4-10>과 같이 방위의 지세를 받을 수 있도록 금형체로 하는 것이 좋다.



<사진 4-7>
서쪽방위의 색채현황



<사진 4-8>
서쪽방위의 색채시뮬레이션



<사진 4-9>
서쪽방위 건물형태 현황



<사진 4-10>
오행의 금형건물

을 적용할 수 있는 색채톤을 말한다.

3) 남쪽방위의 남짓은오름 지역

남쪽방위인 남짓은오름 지역은 한라수목원이 있는 광이오름(250m)과 남짓은오름(290m)을 비롯하여, 우측으로 산성의 흔적이 남아 있는 민오름(250m)을 의지하는 곳에 정주공간이다. 이곳의 풍수형국을 살펴보면, 중앙에 위치한 남짓은오름이 현무봉을 이루고 있는데, 이것은 한라산의 중심룡맥이 북사면의 신제주시로 북사면을 향한 직입수(直入首)[34]를 이루는 형국이다. 따라서 이곳은 한라산의 내룡맥이 뻗어와 남쪽방위에 현무봉을 이룬 곳을 중심으로 의지하고 있으므로, 주작(朱雀)의 기[35]를 받는 것을 의미한다. 남쪽은 화(火)의 지기를 머금고 있으므로 건물의 색은 적색[36]을 띠고 건물형태나 지붕형체가 화형체(▲)를 이루어야 풍수지리적 동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의 현황을 살펴보면, 건물은 다양한 색채(노랑색・흰색・청색)와 건물형태(▮, ⌓, ⌒)가 있었다. 이러한 색채와 형태는 풍수지리적으로 현무봉의 지기를 받지 못하는 형태이다. 따라서 현재 이곳 남쪽의 건물색채와 건물형태는 풍수지리적 방위의 동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정주공간이 명당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남쪽방위의 명당기운인 적색으로 색채디자인을 적용하고, 건축형태를 화형체인 '▲'로 하여야 한다. <사진 4-12>는 오방정론색론에 따라 남쪽방위의 정주공간에 적합한 적색으로 색채시뮬레이션을 한 것이며, 향후 이곳에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진 4-14>와 같이 방위의 지세를 받을 수

---

34) '直入首'는 주산의 용맥이 좌우로 뻗어가지 않고 중심룡맥을 이루어 입지의 중심공간에 직접 전해지는 산줄기의 형태를 뜻한다.

35) '朱雀'은 현무봉과 마주하는 방위에 위치하고 있는 산봉우리를 말한다.

36) 강렬한 에너지가 빛을 발하는 색채이므로, 양기가 왕성하여 강한 생명을 가진 것을 상징한다. 풍수지리방위색채의 적색톤은, 빨강・자주・남색・진주홍 등을 말한다.

있도록 화형체로 하는 것이 좋다.



<사진 4-11>
남쪽방위의 색채현황



<사진 4-12>
남쪽방위의 색채시뮬레이션



<사진 4-13>
남쪽방위 건물형태현황



<사진 4-14>
오행의 화형건물

4) 북쪽방위의 명주마을 지역

북쪽방위인 명주마을 지역은 도저굴이 자리한 작은 오름을 의지하고 있는 곳이다. 이곳은 한라산의 지세가 북사면의 끝자락에 정주공간이 입지하고 있다. 이러한 형국은 한라산의 내룡맥이 180도 이상 크게 환포하여 기봉한 용맥이 현무봉을 이루기 때문에 한라산을 쳐다보는 '회룡고조형(回龍顧祖形)'을 이루고 있는 형국이다. 이것은 풍수지리적으로 한라산의 지세와 서로 마주하여 조응·반

사하는 공간을 이루기 때문에 명당지세를 이룬 곳으로 판단한다. 즉, 이곳은 한라산의 내룡맥이 뻗어와 북쪽방위에 현무봉을 이룬 곳을 중심으로 의지하고 있으므로, 현무(玄武)의 기를 받고 있다. 북쪽은 수(水)의 지기를 머금고 있으므로 건물의 색은 흑색[37]을 띠고 건물형태나 지붕형체가 수형체(⌒)를 이루어야 풍수지리적 동기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곳의 현황을 살펴보면, 건물은 다양한 색채(황색・회색・살색)와 주로 단층건물에 '□' 형태를 이루고 있다. '□' 건물형태는 오행의 토(土)를 상징하기 때문에, 오행론으로 북쪽의 수(水)와 '土克水'의 상극을 이루는 형태로 볼 수 있다.[38] 이러한 색채와 형태는 풍수지리적으로 현무봉의 지기를 받지 못하는 형태를 상징한다. 따라서 현재 이곳 북쪽의 건물색채와 건물형태는 풍수지리적 방위의 동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의 정주공간이 명당공간을 이루기 위해서는 북쪽방위의 명당기운인 흑색으로 색채디자인을 적용하고, 건축형태를 수형체인 ⌒로 하여야 한다. <사진 4-16>는 오방정론색론에 따라 북쪽방위의 정주공간에 적합한 흑색으로 색채시뮬레이션을 한 것이며, 향후 이곳에 건물을 신축할 때에는 <사진 4-18>과 같이 방위의 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수형체로 하는 것이 좋다.

---

37) 강렬한 에너지가 빛을 발하는 색채이므로, 양기가 왕성하여 강한 생명을 가진 것을 상징한다.

38) '풍수지리방위형체론(風水地理方位型体論)'을 적용하면, 북쪽의 수(水)방위는 수형체(水型体)의 건물은 이곳 지기의 영향을 받는 곳이다. 그러나 건물형체가 수형이 아니고 목형(木型)일 경우, 수생목(水生木)이 되면서 수의 기운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금생수(金生水)의 논리에 따라 금형체(金型体) 건물(지붕・옥상공간)로 변환시켜주면 북쪽방위의 지기를 받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풍수지리방위지세론'은 자연지세의 영향을 받는 곳과 같은 방위의 형체만 기를 받는 것이며, '풍수지리방위형체론'은 방위에 따른 건물형체를 상생시킬 수 있는 방법론으로 정의할 수 있다.



<사진 4-15>
북쪽방위의 색채현황



<사진 4-16>
북쪽방위의 색채시뮬레이션



<사진 4-17> 북쪽방위의 건물형태현황





<사진 4-18> 오행의 수형건물

5. 결 론

본 연구는 공간디자인의 중요한 요소인 색채와 형태에 주목하여, 공간을 자연환경과 인간과 조화시키는 매개체로 생각하는 풍수지리 이론의 오방정색론과 오행론을 적용하여 주거공간의 색채환경을 분석함으로써 공간디자인에 도움이 되는 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 신제주지역의 연동의 주거지역이며,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지역을 오방정색론과 오행론으로 분석하고, 그 지역에 맞는 주거건물의 색채와 형태를 제안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동서남북 모든 지역이 풍수지리적 생기를 받기 어려운 건물의 형태와 색채현황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오방정색론과 오행이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오행론(五行論)을 적용하여 주변의 지세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물형태를 제시하였다. 즉, 동쪽은 목(木)의 지기가 왕성한 곳이므로 건물형태나 지붕형체를 목형체(▮)로 하고, 서쪽은 금(金)의 지기를 머금고 있는 곳이므로, 금형체(⌓), 남쪽은 화(火)의 지기를 머금고 있으므로 화형체(⩓), 북쪽은 수(水)의 지기를 머금고 있으므로 수형체(⌒)를 하도록 제안하였다. 셋째, 오방정색론을 적용한 그 지역에 맞는 디자인을 하도록 색채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제시하였다. 즉, 한번 형성된 건물의 형태는 변경하기 어려우나 상대적으로 손쉽게 변경 가능한 색채를 활용하여 그 지역의 지기와 생기를 받을 수 있도록 동쪽은 청색, 서쪽은 흰색, 남쪽은 적색, 북쪽은 흑색으로 디자인하도록 제안한 것이다. 이와 같이 풍수지리이론인 오방정색론과 오행론을 적용하여 주거공간의 색채환경을 분석하고 그 적용안을 제시한 본 연구의 결과는, 보다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적용되는데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보다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신제주시 '신제주로타리' 반경 2㎞의 정주공간 및 위성사진

2. 논문

박유리 · 이명훈, 「가로공간의 색채가 지역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45(6), 2010, pp. 5-19.

박재락, 「종택마을의 형성배경 및 입지공간에 관한 풍수지리적 분석」, 『인문연구』 제68호, 2013, pp.275-290.

박효철 · 이승노, 「전통풍수의 상징적 의미를 체용한 간판 배색 제안」,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2(2), 2013, pp. 131-139.

윤홍기, 「왜 풍수는 중요한 연구주제인가」, 대한지리학회지, 36(4), 2001, pp. 343-355.

은덕수 · 최성호, 「지속가능한 디자인 방법론으로서 풍수이론에 대한 고찰」, 한국디자인지식학회 논문집, 2010, pp. 1-10.

이규완, 「삼국유사 색채어의 길흉표현과 오방정색론의 확산에 관한 연구」, 언론학연구, 17(2) 2013, pp. 159-188.

장성규, 「국내 풍수지리학 교육현황」, 대한건축학회 건축, 54(5), 2010, pp. 89-93.

진주현, 「어린이집의 색채계획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한종구, 「홍콩섬의 현대건축에 적용된 풍수에 대한 연구」(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21(12), 2005, pp. 29-36.

3. 단행본

文淵閣四庫全書 第808冊「葬書」, 여강출판사, 2009.
박시익,『한국의 풍수지리와 건축』, 일빛, 1999.

Feng Shui Applied Erroneous Coloring Residential Loans and Ohhaengron Study on the Color Environment
- Focused on Sinjeju Region -

Ko, Bong-Seon · An, Ok-Hee · Song, Dae-Seon

This study is an important element of the design space, pay attention to color and form, space and harmony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and the human agents erroneous to think that the theory of feng shui theory and ohhaengron(五行論) applying the coloring of the color environment by analyzing the residential space design to help was performed in order to obtain the material. The subjects were engaged in a residential area Sinjeju Jeju, and research methods to the study area ohhaengron erroneous theory and analysis of color intensity, and the area of the right color and shape of a residential building is proposed.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feng shui compass animation all areas of the building difficult to get into shape and color, respectively. Therefore erroneous theory of the Five Elements theory and color intensity you need to apply, respectively. Second, ohhaengron(五行論) is applied to the topography of the surrounding buildings in harmony with the proposed form. That is, east of the neck(木) because of being a vigorous building where the shape of the neck shape and the shape of the roof, west of gold(金) in place of being so faded, gold shape, south of the fire(火) of Tue shape being so faded, the north can(水) faded because of being proposed to be shapes. Third, the erroneous theory of coloring applied to the area of color design right through simulation presented. In other words, in order to change the shape of the building once formed relatively easily modifiable eoryeowoona utilizing color and life to the area to be able to become the blue east, west, white, red the south, to the north of the proposed design in black .

Thus, Feng Shui theory applies ohhaengron erroneous theory and the coloring of living space analysis and its application environment inside the color presented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more comfortable and healthy environment, which can form a new way of thinking to apply the methodology can be seen as one. However, the limited area of the target area, so more research is needed to Target.

Key word: Feng Shui, ohhaengron, Color, Environment

고봉선(제1저자)
소속: 영남대 가족주거학과 박사과정수료
주소: 제주도 제주시 연동 그린아파트203호
전화번호: 064)711-5029 / 010-3692-2029
전자우편: udo0706@hanmail.net

안옥희(교신저자)
소속: 영남대 가족주거학과 교수
주소: 대구광역시 봉덕2동 효성타운 206동 1201호
전화번호: 010-2944-2864
전자우편: aohee@ynu.ac.kr

송대선(공동저자)
소속: 영남대 가족주거학과 박사과정수료
주소: 경북 경산시 백자로 10길 11. 부영6차 621동 502호
전화번호: 010-7795-6899
전자우편: stso813@hanmail.net

이 논문은 2014년 3월 15일 투고하여
2014년 4월 9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4년 4월 16일 게재 확정함.